

# 포스코 '불황극복' 불 지핀다

광양 후판공장 건설 박차… 2분기 생산 상향 조정

포스코가 광양 후판 공장과 포항 신제강 공장을 차질없이 건설하기로 했다. 2분기에는 감산 폭도 줄인다. 1분기 영업이익이 7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공격적인 투자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포스코는 지난 1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설명회(IR)를 갖고 “광양 후판공장과 포항 신제강 공장 건설,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를 위한 설비 도입 등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는 계획대로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  
‘홍보브랜드’ 나왔다

지식경제부는 12일 광양, 인천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의 통합 이미지 구축을 위해 홍보브랜드와 슬로건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홍보브랜드는 인적 자원과 환경을 갖추고 5대양 6대주를 향해 미소 짓는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을 6개의 타원형 꽃잎으로 표현했다.

또 외국투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슬로건은 산업이라는 경제자유구역의 속성과 ‘꽃을 피운다’는 상징적 표현을 조화시켜 제작됐다. /연합뉴스

이동희 사장은 “지금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투자는 미래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원가절감을 통해서라도 투자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이에 따라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체질을 만들기 위해 전사적 원가절감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하고 연초 수립한 9천584억원의 원가절감 계획을 1조2천95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포스코는 또 급변하는 시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생산, 판매, 설비 운영 계획 등 경영계획 수립 주기를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전환했다. 5월 초 예정이던 광양 4고로 개수일정을 80여일 앞당기는 등 감산 체제에서 효율성 향상에 힘쓰고 있다.

포스코는 이달에는 1분기와 비슷한 25% 감산 수준을 유지하지만 2분기 전체로는 전분기보다 줄일 계획이다.

한편, 포스코는 올해 1분기에 매출액 6조4천10억 원, 영업이익 3천730억 원, 순이익 3천250억 원을 기록했

다고 밝혔다. 이는 전분기보다 매출액 22.1%, 영업이익 73.3%, 순이익이 55.0% 감소한 것이다. 작년 동기보다는 매출액은 6.7% 늘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70.7%, 68.5% 줄었다.

연결기준으로는 매출액 8조7천880억 원, 영업이익 5천860억 원, 순이익 3천990억 원을 올렸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자동차, 가전 등 수요산업 악세가 절강수요 감소로 이어지며 지난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철강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포스코도 4개월 연속 감산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1분기 조강생산 및 판매량이 모두 줄었다.

1분기 조강생산은 615만t, 제품판매량은 600만t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5.2%, 24.9% 줄었다.

또 작년 대비 원료구매단가 상승 및 환율 영향으로 원료비가 증가하는데 감산에 따른 고정비 증가로 영업이익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포스코는 올해 1분기에 매출액 6조4천10억 원, 영업이익 3천730억 원, 순이익 3천250억 원을 기록했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로또복권

(제332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16 17 34 36 42 45	3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359,448,388	8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48,989,132	37
3 5개 숫자 일치	1,650,818	1,098
4 4개 숫자 일치	60,589	59,833
5 3개 숫자 일치	5,000	979,060

## 팝콘복권

(제155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5조 277793
2	1억	3조 966183
3	1천만	1조 358805
4	1백만	각조 85017
5	50만	각조 1363
6	2천	각조 71
7	1천	각조 72
		각조 68
		각조 6
		각조 3
		각조 8

발암 유발 ‘석면공포’ 말끔히 ~

## 찹쌀 화장품·웰빙식품 나왔다

전남대 바이오기업 ‘다산M&F’

‘전분미인’·‘에센스 위센’ 출시

베이비파우더에 이어 화장품, 의약품에서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불안한 가운데 지역에서 생산된 찹쌀로 만든 화장품과 천연건강식품이 출시돼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바이오벤처기업 다산M&F(대표 안봉환·www.dasanmf.kr)가 담양군에서 생산된 찹쌀로 만든 피부보습제 ‘찹쌀전분 미인’과 위점막보호용 웰빙식품 ‘찹쌀에센스 위센’을 선보였다.

‘찹쌀전분 미인’(200g·5천500원)은 보습효과가 탁월하며 피지 등의 분비물에 대한 흡착력이 뛰어나 입욕제나 팩으로 활용하면 좋다.

특히 피부가 건조하거나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의 가려움증 같은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또 입자가 작아 비누, 헤어제품을 비롯해 오일, 로션, 파우더 등 천연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해도 좋다.

숙취해소에 도움이 되는 ‘찹쌀에센스 위센’(90포·4만8천원)은 찹쌀이 민간요법에서 속쓰림, 위궤양 등의 예방 치료에 활용

됐던 것에서 착안해 만들어진 위점막보호용 웰빙식품이다.

쌀로 만든 천연제품 특성상 쉽게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분 제조과정 중 2차례에 걸쳐 살균작업을 했으며 소량 포장을 통해 유통기간도 1년으로 늘렸다.

내년에는 ‘찹쌀에센스 위센’의 음료형 식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각종 임상실험 거쳐 천연물의 음료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대표를 맡고 있는 안봉환 교수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쌀 가공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쌀 소비를 촉진하고, 제품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을 지역 농협과 농민들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구매하는 등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문을 연 다산M&F는 농산물 가공 및 식품 제조 회사로 종소기업청 지원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전남도 대학농업벤처회사 지원 대상 등으로 선정됐다.

또 지난해에는 담양군 창평면 용수리에 242㎡ 규모의 공장을 설립해 원심분리기, 자외선 살균기 등 각종 설비를 갖춰 직접 제품도 생산하고 있다. 문의 061-381-4107.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10일 오후 광주시 동구 학동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 교실에서 안봉환 교수가 찹쌀로 만든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4500

▲ 목포시는 18일부터 이를간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2009 전남과학 축전’을 개최한다. 062-613-6560~3

▶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전시관에서 ‘경찰’을 대상으로 주요 전시관별 발주 방식 및 토목사업 규모 등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02-740-

▲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는 15일부터 이를간 목포시 옥암1관 리사무소에서 무안군 삼향면 남악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매일임대 계약을 체결 한다. 061-284-8181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JT 조이 여행사**  
234-3222

**제주**

복권 3박4일 (02)  
**359,000**

복권 4박5일 (02)  
**399,000**

51 번회 대만 투어  
대만/화롄/아메리온 4일  
**899,000**

대만/화롄/아메리온+101빌딩 4일  
**979,000**

제주 2박3일 키즈카페 투어  
**88,000**

★ 4월 5주  
5월 5주 5/28

한국+선풍  
**138,000**

**카멜리아로 떠나는 큐슈 온천여행 4일**

**299,000 (아마나마루나무온도)**

**379,000 (전통포차, 특급호텔)**

**제주항공 초특가**

큐슈온천여행 3일  
**565,000**

5일  
**605,000**

제주 4박5일  
제주+화롄  
**655,000**

4일  
**725,000**

모두  
나들이  
여행  
여행  
**775,000**

제주 9박 10일 누리리조트(가족파크+한정)  
온천여행 4일  
**715,000**